

10곳중 7곳 “완성차 공장 들어서야 광주 빛그린산단 입주”

광주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관련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124곳 설문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건립이 시급한 것은 이 공장을 중심으로 빛그린산업단지에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광주가 ‘미래 자동차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000여여업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가 제 역할을 하고 국내외 기업에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완성차 공장도 필수다. 단순히 소형 SUV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이 하나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차 공장 유치를 통해 부품클러스터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완성차 공장과 부품클러스터를 제대로 가동

124곳 모두 “현 상황에서 이전 불가능”
“완성차 공장 입주 선행돼야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탄력”

하면 딱 막힌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간 불균형을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상당하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상당수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빛그린산업단지로의 기업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지원과 완성차 공장 입주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혁신산단 운영모델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워크인연구소의 의뢰로 진 리서치가 지난 8월 13~31일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1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현대차 완성차 공장의 입주가 선행되면 이전을 하겠다는 업체들은 많았다. 이전을 하게 된다면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38%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지원’을 첫 손에 꼽았고, 30%는 ‘완성차 공장의 입주’를 선행조건으로 들었다. 현재 추진중인 현대차 광주 합작법인 설립이 확정돼 빛그린산단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고 정부와 광주시가

적극 지원한다면 10곳 중 6~7곳이 빛그린산단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현재 상황에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58개 업체도 이유로 ‘현재 원정업체 인근에 위치해서’(37.9%)를 꼽았다.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충분히 따라 올 부품업체들이 많다는 의미다.

완성차 공장이 광주에 들어서고, 현재 광주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더욱 늘린다면 빛그린산업단지에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입주 업체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조사 결과다.

특히 입주 조건으로 ‘부품기업들의 집적을 통한 전문화’(14%), ‘빛그린산단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원하청, 노사 관계’(13%) 등이 뒤를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를 잡는다면 국내의 기업에게 광주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 3030억원의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타 통과됨에 따라 미래형 자동차 육성관련 R&D자금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빛그린산단에 3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179종의 첨단장비가 마련되고, 선도기술지원센터 등 구축을 위해 1985억원이 투입된다.

또 유망기술 개발에 699억원과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에 346억원이 지원돼 광주를 선택하게 될 전기차 기업의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돕게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파격적인 광주시의 투자기업 인센티브도 매력적이다. 광주시는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최대 10%까지 지원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 올리비에 뒤습트 영예수행장관(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프랑스 의장대 사열 유럽순방 일정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 프랑스 국민 방문을 포함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1시간여의 비행 끝에 이날 오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리 측에서는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내외와 이병철 주유네스코대사 내외, 이상무 한인회장, 진병철 민주평통남유럽협의회장, 프랑스 측에서는 파비아 페는 주한 프랑스대사와 프랑스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 등이 영접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100m 정도 레드카펫을 따라 이동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 나갔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저녁에 파리의 칸컨벤션센터에서 가진 파리 동포간담회에 참석 “평화의 한반도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한다”며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4일에는 방탄소년단이 함께하는 한울 우정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구축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민 만찬 등에 참석한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사용액 전국 꼴찌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사용액도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인천,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다.

기금은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 시설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확보기준액이 1165억9900만원이지만 확보액은 616억5200만원으로

확보율이 53%에 그쳤다. 이 같은 확보율은 인천(35%)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반면 전남, 전북, 대전, 경기, 강원 등 12개 시·도는 1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가운데 사용액 비율은 3.6%(26억3천700만원)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는 적립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소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과 부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며, 각 시·도는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 예방과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숙의 프로그램’ 구성 숙의자료집·온라인 전용 Q&A방 등 제공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의 의견을 제시할 250명 시민참여단이 스스로 학습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숙의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2일 5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 250명이 거쳐야 할 관문으로 숙의자료집과 이러닝(e-Learning) 학습, 온라인 전용 Q&A방,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등의 숙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참여단 250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성·반대·유보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26일까지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학습해야 할 숙의 자료집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양측의 주장을 분리해 이달 26일께에 발간하기로 했다. 숙의자료집은 공론화 개요와 광주시 교통현황(도시철도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양측의 주장 등을 각각 30쪽 이내로 담아 제작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 찬·반 양측이 주장한 숙의자료집 초안이 나오면 전문가의 검증과 수정을 거쳐 최종본을 우편과 이메일로 시민참여단에 보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는 오는 11월 9일~10일, 1박 2일 집중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9일 열어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합평

Imagine your Korea

2018 대한민국의 문화축제

국화가 그리는 가을날의 동화!

함평엑스포공원 10.19^금 - 11.4^일(17일간)

주최 함평군 / 주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 문의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T.061.320.1784 www.hampyeong.go.kr

후원